

뿔난 여수어민들 “바다 생태계 파괴 해상풍력 안돼”

“어업 질서 교란·난개발 조장” 어선 600여척 해상 시위 관련 부처 등에 성명서 전달

여수지역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단체들이 삼산면 일대에 추진하는 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여수수산업협회와 여수어촌계장협의회, 연근해 어업인 단체로 구성된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여수시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어업인 총궐기 대회를 갖고 해상 풍력 발전 추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궐기대회 후 어선 600여 척을 동원해 한 시간여 동안 해상을 오가는 페어리드 시위를 펼쳤다.

어민들은 민간발전 사업자들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편승해 여수의 황금어장에 버젓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바다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어업 질서를 교란하고 여수 앞바다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육상과 해상으로 나눠 진행됐다. 어민 150여 명은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성명

서 낭독, 연대 발언과 구호 제창 등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어 해상에 대기 중이던 600여 척의 어선이 뱃고동 소리와 함께 일제히 바다위를 질주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앞서 여수시연·근해 어민들의 주 조업 장소이면서 삶의 터전인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해역에서 13곳에 걸쳐 원자력발전기 5기에 육박하는 4712 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인근에는 거문도와 초도 등 여수의 섬들이 있으며, 어선뿐만 아니라 어객선 항해가 빈번해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어민들은 좁은 여수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10여 개 조성되면 조업 구역이 잃게 되고, 발전기 설치공사와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 교란, 부유사 발생 등 저서생물 서식지 파괴로 수산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방오도로, 유탄유, 연료, 연마재 등 화학물질 유출로 생물학적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 실제 해상풍력 사업에 영향을 받는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수 십km 떨어진 섬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만으



8일 오전 여수시 국동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600여척이 해상페어리드 시위를 펼치고 있다. 어민과 어민단체는 여수해역에서 해상풍력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가진 뒤 어선을 몰고 해상으로 집결했다. <여수 해상풍력발전대책위원회 제공>

수용성을 확인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행태가 여수 어촌사회 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난성 여론도 빠지지 않고 있다.

여수 해상풍력발전대책위는 이번 어업인 총궐기대회를 계기로 산업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 및 전라남도, 여수시 등에 어업인 성명서를 전달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여수 어민들은 수십 년을 이어온 황금어장이 일방적으로 침탈되는 지금의 상황에 분노하며 해상풍력 업자들의 행태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어 총궐기대회를 열었다”면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인 전남 바다를 지키기 위해 어민들은 목숨을 걸 각오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경찰서-여수광양항만공사 농촌 범죄 예방 CCTV 지원



지난 7일 광양경찰서에서 박성현(오른쪽) 여수광양항만공사시장과 장진영 광양경찰서장이 협약식을 가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광양경찰서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농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7일 광양경찰서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농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공사와 광양경찰서는 광양지역 농촌 마을에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구축 사업을 실시한다는 약속을 협약에 담았다.

또 공동으로 치안 데이터 분석 및 범죄예방진단을 수행해 CCTV가 필요한 마을의 우선순위를 선정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CCTV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연간 범죄 발생 추이, 사고 예방 건수, 마을주민 만족도 등 사업 효과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및 광양경찰서와의 공유를 통해 사업을 고도화한 후 전남권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참여 기회 제공

고흥군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20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로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8일까지 1차 모집을 완료하고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일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5세부터 18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으로, 수혜자 확정 후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인당 월 8만 5000원,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게 되며 연간 최대지원액은 85만 원이다.

이용 가능한 스포츠 종목은 태권도, 볼링, 검도, 수영, 택견 5개 종목이며, 지역 19개 시설을 통해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관내 소외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 1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스포츠체험 기회를 통해 소외계층의 건강과 심신단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153억 투입 ‘구례 웰니스 복합센터’ 설계 공모

수영장·다목적 실내체육관·실내놀이터 등 조성

구례군이 생활문화 랜드마크로 추진하는 ‘구례 웰니스 복합센터 조성사업’의 설계를 공모한다.

구례 웰니스 복합센터는 국무조정실의 지난해 추진한 ‘2022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73억원을 포함해 153억원이 투입된다.

국무조정실 심사 과정에서 구례군이 제시한 민

간 참여계획과 시설 운영계획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10대 우수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국토부 주차장 사업 등 3개 사업을 복합한 사업이다.

수영장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등 구례군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한 곳에

조성하는 랜드마크로 7000㎡ 부지에 연면적 6000㎡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공모 참가 등록을 접수한 후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4월19일까지 공모작을 접수한다.

공모작을 대상으로 심사한 후 4월 말까지 최종 설계업체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생활쓰레기 줄이기 ‘2905시민운동’

1인 하루 0.5kg 감량 목표

자원순환활동가 35명 선발

순천시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905시민운동’을 추진한다.

‘2905시민운동’은 29만 순천시민이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을 0.5kg까지 감축하는 범시민 참여 운동으로, 현재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 0.8kg을 오는 2026년까지 약 40%를 줄여 0.5kg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각 기관·상인단체 등과 협력해 1회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범가정을 지정해 실천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또 ‘자원순환활동가’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시민교육을 실시해 시민참여운동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자원순환활동가는 타 지자체 선진사례를 분석·도입하고 국내 모범 환경활동가와 교류하며,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2월 중 35명의 자원순환활동가를 선발해

순천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자원순환활동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4월부터 본격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자원순환활동가가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16일 순천시 청소자원과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원순환활동가 모집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청소자원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쓰레기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목전에 닥친 문제로 인식하고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모든 시민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보성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상·하수도 요금의 50%다. 신청 기간은 1차 경우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2차는 3월21일부터 28일까지다. 1차 신청자는 3-5월, 2차 신청자는 4-6월 요금을 감면받는다.

신청자격은 ▲보성군 소재 사업장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또는 이달 말 기준 신규 사업자 등이다.

감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증빙서류를 첨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보성군청 홈페이지 군청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성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 2200곳이 이번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